

청년작가 3인이 예술적 시선으로 성찰한 '기억의 힘'

청년작가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

내달 2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참여작가 케이윤·이창현·조은솔 '기억' 주제...설치·영상 등 17점

기억은 개인적 경험과 집단적 역사 속에서 축적된다. 공간과 사물이 기억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 건 인류의 관습인 셈이다.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의 특징이다. 선택적 저장과 해석의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화한다.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구축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게 기억의 힘이다.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5 전시실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청년작가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는 이러한 기억의 힘을 모티브로 작업한 실험적인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다음달 25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서 케이윤, 이창현, 조은솔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해 '기억'을 주제로 구현한 설치, 영상 등 17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이 열리는 공간에 들어서면 기억과 경계, 정체성의 형성과 해체 과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준다. 기억이 경계를

형성하고 허무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서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시각화한 것이다.

먼저 케이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공간과 보이지 않는 경계를 탐구했다. 해남 출신인 그는 그간 망령과 혼의 존재를 깊이 있게 조망해 왔다. 독립 기반으로 유럽, 뉴욕 등 해외에서 활발한 미술 활동을 이어가며 개인의 경험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한 작업을 보여준다. 특히 빛, 소리, 공기 등 비물질적 요소를 활용한 방식은 실험적이며 독창적이다. 케이윤이 펼쳐낸 세계에서 관람객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감각을 확장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이창현 작가는 서울에서 활동하며 의복의 역사성을 탐구해 왔다. 그에게 옷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오브제다. 옷에 깃든 주름과 봉제선은 옷을 만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쌓인 기억들이자 변화의 흔적이다. 이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결과물들은 신체를 통해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변화시키는지를 되새기게 한다.

조은솔 작가는 담양 출신으로 현재 광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청년작가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가 다음달 25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이창현 작가의 작품들이 자리한 공간.

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억과 존재의 유기적 연결성, 생명의 순환적 구조를 강조해 온 그는 이번 작업에서도 이를 구체화해냈다. 조 작가는 인간을 독립적 개체가 아닌, 변형되고 확장되는 유기적 흐름 속의 존재로 인식한다. 이는 생명과 환경, 물질이 연결된 관계망 속에 작동함을 의미한다. 영상, 가변설치 작품 등을 통해 기억이 어떻게 개별적 정체성을 넘어 공

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되는지를 체험케 한다.

이번 청년작가전은 관객이 작품을 감상한 뒤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확장하게 만든다. 지역과 서울, 해외 등 각기 다른 공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신진작가들이 치열하게 고민한 예술세계를 선보이는 장이자 향후 국내외 미술계의 흐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획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미래를 조망하며 나아가는 미술적 실험의 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억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한 전시를 감상하고 관람객들이 예술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크라운해태, 광주서 전통음악 공연 선봬

16일 '제4회 크라운해태 한음회'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크라운해태제과 임직원들이 오는 16일 광주를 방문해 특별한 국악 무대를 꾸민다.

13일 크라운해태제과에 따르면 광주시민을 위한 전통음악 공연 '제4회 크라운해태 한음회'가 16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사내 전통음악 동아리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임직원 180명과 한음 영재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광주지역 고객들을 초청하는 고객감사 공연으로 펼쳐진다.

크라운해태제과는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한음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방문하는 지역에 맞게 특색을 살린 전통음악을 선사하며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광주 공연은 종묘제례악무보태평지무(희무, 귀인)로 막을 열고 민요 장기타령과 자진뻗노래, 판소리 인생백년과 진도아리랑 때창이 이어진다. 또 남창가곡 중 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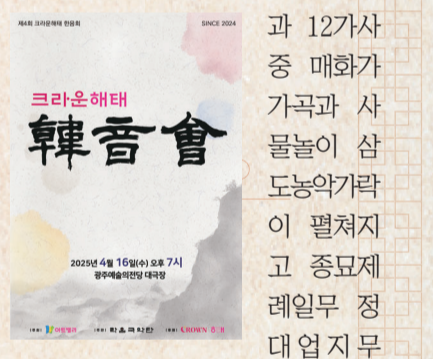
과 12가사 중 매화가 가곡과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이 펼쳐지고 종묘제례악무 정대업지무(소무, 영관)로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무대에 오르는 크라운해태제과 임직원 180명은 현재 종묘제례악무(팔풍의 몸짓), 가곡(정가네), 판소리(판판세), 민요(민들레 민요합창단), 사물놀이(꿈을 굽는 사물놀이) 등을 각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쌓았다.

이들은 5개 동아리를 통해 지난 14년간 꾸준히 갈고 닦은 실력을 광주에서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그간 배우고 즐겼던 국악 실력을 광주시민을 초대할 무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며 "전국의 고객에게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직접 전하고 함께 즐기는 한음공연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기자



5·18 다룬 ACC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 해외로

실내용에서 야외극장용 재제작 서울 이어 영국·일본 무대 진출

5·18 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대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로 뻗어간다.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에 따르면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지난 3~5일 서울 창작연극센터 개

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0~1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북·4·19 연극제에 참여했다.

또한 올해 영국과 일본 등 국제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해외 유통에 시동을 건다.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코리아시즌' 공연으로 선정돼 오는 8월 한 달간 어셈블리 극장에서 총 24회 장기 공연을 진행하며 9월에는 일본 베세토 연극제에서 해외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지난 2018년 첫선을 보였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에 얽힌 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980년 오월 광주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초연 당시 가변형 극장인 ACC의 극장 1 공간의 이점을 활용한 '움직이는 객석'을 설치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실내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이 연극은 지난 2022년 야외극장으로 다시 제작돼 경남 밀양과 진주 등 전국 순회공연을

펼쳤다. 또 지난해에는 원작의 번외 작품을 만들어 서울에서 장기간 공연을 펼치는 등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ACC의 대표 공연인 '시간을 칠하는 사람'을 국내외 관객들께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와 아시아 문화를 담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세계에 선보이도록 유통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올해 서울과 영국, 일본 등에 유통된다. 사진은 '시간을 칠하는 사람' 공연 현장. ACC재단 제공



몸의 언어로 펼쳐낸 역사적 트라우마... 'DIVINE'

'2관왕' 광주시립발레단 공연 내달 16~17일 광주예술의전당

잔혹했던 시간을 발레 언어로 표현하며 고통과 연대의 몸짓을 상사롭게 구현한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지난

2023년 첫선을 보인 후 평단과 무용계의 극찬을 받았던 브랜드 공연 'DIVINE'을 다음달 16일 오후 7시30분, 17일 오후 3시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DIVINE'은 '신성한, 숭고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5·18 영령과 광주시민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 기획돼 광주의 아픔을 세계적 보편 감정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고통과 희생, 용서와 치유를 거치는 인간 감정을 원초적 몸짓으로 표현한 안무는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발레라는 장르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환상적이고도 숭고한 미장센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구체적인 서사 없이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연

은 3장으로 구성된 △자유 △어둠에서의 탈출 △신성한 인간 존재 등을 주제로 펼쳐진다. 50여명의 무용수들이 참여해 절규, 침묵, 탄식 등 상징적인 몸짓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지난 2023년 '몸' 무용예술상 작품상, 지난해 한국발레협회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시대정신을 동시에 인정받은 바 있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예술감독은 "무

용수들의 숭고한 몸짓을 통해 역사적 기억을 예술로 확장하고자 했다"며 "지난 2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다시 무대에서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공연 'DIVINE'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예술의전당 유료회원 선예매, 18일 오후 2시 일반 예매가 오픈된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다. 박찬기자